

「福井県嶺南地域の妊婦さんが不安にならないように私たち高校生にできること」

～ “What we high school students can do so that pregnant women in Reinan, Fukui Prefecture, do not become anxious” ～

～ “후쿠이현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

美方高校 宮下明莉、濱野愛結

高校の授業「総合的な探究の時間」で研究した内容をレポートにまとめた。多くの人にこの活動を知っていただき、地域の人（妊婦など）が心身共に健康に生活でき、住み続けられる町づくりにつながればと思います。韓国語は韓国で翻訳の仕事をしている濱田真由美様に協力いただき作成した。

私たちは国連が提唱する「SDGs(持続可能な開発目標)」の「③すべての人に健康と福祉を」「⑩住み続けられるまちづくりを」を達成するために、地元の妊婦さんが不安にならないように、高校生にできることについて探究活動を行った。

福井県嶺南には産婦人科が少ないことから、敦賀市の健康センターと美浜町の保健福祉センターに「妊婦さんがどんなことで不安を感じているか」など嶺南地域の現状を調査して、2つの対策を考えて実行した。

1つ目は、妊婦体験をすることだ。妊婦の気持ちになれば、妊婦に対する気持ちが変わると思ったからだ。妊婦体験ができる重りの入ったエプロン型機材をお借りして、美方高校の文化祭で女子と男子に妊婦体験をしてもらった。体験者からは、「思っていたより体が重くてしゃがむことやずっと立っているだけでも大変だった」、「困っている妊婦さんを見かけたら助けたいと思った」などの意見があった。アンケートの結果から命の貴さやいたわり、男女で助け合いながら子育てすることの大切さを学ぶことが分かった。

この活動はメディアでも取り上げられた。

2つ目は、美浜町役場の近くに産婦人科を建設することだ。美浜町を含む嶺南地域には過去6つの産婦人科があった。しかし、現在出産ができる場所は4か所だけである。そこで美浜町に新しく建設する案を考えた。建設理由として人口10万人当たりの医療従事者数を調べたところ、福井県嶺南の助産師数は福井県全体や全国に比べて多いことがわかった。このことから嶺南の助産師数は十分に足りているため、新しく産婦人科を設立しても人手不足にはならないと考える。産婦人科設立にかかる費用は土地代が約3000万円以上で、設備に約2000万円以上必要である。これは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という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負担が減る。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とは、起案者がネット上で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



(2020年9月5日 福井新聞)

て、支援者を募って出資してもらい、対価として支援者へリターンを渡すという仕組みである。実際に広島県のある産婦人科では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を利用し、新しく産婦人科を設立し、今でもたくさんのお産をサポートしている。このサービスを利用すれば新しく産婦人科を設立することは可能だと思う。以上のことから、産婦人科を新しく設立できた場合、そこで妊婦体験をできる場所を設けることもできる。

以上の体験や対策は美方高校主催「私たちの未来」探究学習発表会にて若狭町と美浜町の町長や教育長および近隣の中学生150名に対してポスター発表を行った。地域の人に産婦人科不足や妊婦の思いなどを問題提起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高校など教育機関で妊婦体験をすることで妊婦を理解する人が増える。このような学生の活動を通して、少しでも多くの妊婦が安心して暮らせるようになればいいと思う。



【英文】

We worked on research to achieve “ ③ Good health and well-being ” and “ ⑪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dvocated by the United Nations.

Since there are few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in Reinan, Fukui Prefecture, we conducted survey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inan area, asking questions such as “What are pregnant women feeling uneasy about?” at the Health Center in Tsuruga City and the Health and Welfare Center in Mihama Town. We thought about and implemented two things.

First, we thought it would be important for us high school students, to experience what it's like to be pregnant. We thought that if we felt like pregnant women, our feelings toward pregnant women would change. We borrowed an apron with a weight that allows us to experience what it's like to be pregnant and had Mikata high school students, both girls and boys, experience it at the school festival. They said that the weight was heavier than they had expected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crouch and keep standing all the time. They realized they will help when they see a pregnant woman in need. From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t was found that we can learn about the preciousness of life and the care and importance of raising children while helping each other between men and women.

This activity was featured in the media.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near the Mihama Town Hall. There have been 6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in the Reinan area, including Mihama Town. However, there are currently only four places where we can give birth. So we thought about a new construction project in Mihama Town. When we examined the number of medical workers per 100,000 population,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midwives in Reinan, Fukui Prefecture, was higher than the

t in Fukui Prefecture as a whole or even the whole country. From this, we believe that the number of midwives in Reinan is sufficient, and that even if a new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is constructed, there will be no labor shortage. The cost of establishing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is about 30 million yen for land and about 20 million yen for equipment. We think that the burden will be reduced by using a service called crowdfunding. Crowdfunding is a service in which a planner launches a “project” on the Internet, solicits “supporters” to make an investment, and sometimes gives a return to the supporters as compensation. Actually,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 in Hiroshima Prefecture uses a crowdfunding service to establish a new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 which now supports many births. We think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new obstetrics and gynecology by using this service. From the above, if we can establish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 we can set up a place where everyone can experience what it’s like to be pregnant.

The experiences and measures above were presented as posters to the mayors of Wakasa Town and Mihama Town, the Education Agency, and 15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he neighborhood during the “Our Future” Exploratory Learning Presentation hosted by Mikata High School. I was able to raise issues such as a lack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 and the feelings of pregnant women to local people. In addition, the number of people who understand pregnant women will increase by experiencing carrying the weight of at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high schools. I hope that as many pregnant women as possible can live with peace of mind through such students’ activities.

(第1種創作物認可)

SDGsから日常に目



SDGsをテーマに探究学習を取り進める
本高校の生徒たち「百鬼町の美力高校」

美力高 教育、地域医療テーマに探究

若狭町の美力高校が、国連が掲げるSDGs（持続可能な開発目標）「セクターとして探究者に取り組んでいる。二年生百五十四人が地域の将来「日常」に関わる探究を行い、内幸町地域医療やスポーツなどさまざまな。一部の生徒は三日に同校で開かれた探究テーマに即した発表を行った。音楽の効果と勉強の効率的性についての実験「10」もある。

(取材) 堀田博司

きょう学校祭で実験 妊婦ジャケット着用体験も

同校では、生徒たちが地域や身の回りの課題を捉え、解決していく力を育んでもらおうと探究学習を推進。本年度からSDGsをテーマに組み入れ、県が八月に開設した「心くいSDGs パートナ」の一環となった。生徒たちは、一人もしくは数人のグループで、一年間を通して探究に取り組んでいる。学校祭で発表を行うのは、このグループ。音楽の効果と勉強の効率的性について調査するグループは、協力してもらった生徒たちやボランティアを雇った時をふまえて、それぞれが課題を解決してもらう。探究学習を推進していき、地域と密接な関係が築かれる。探究学習を通じて、質の高い教育に貢献したと認められている。

妊婦体験する調査をするグループは、美力町の施設から借りた「妊婦ジャケット」を着用して、負担や生活への影響について体験した。妊婦への印象がどう変わったか調べた。

音楽家の堀野登紀さんと宮下明利さんは「妊婦方には産婦人科がないと聞くと安心して赤ちゃんと産む場所になるのではと、美力高校の施設をめぐって、学校祭での発表などを中心とした。SDGsのグループも各探究者のために、十月に開催された。月に一度発表会を開く予定。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防止対策として、学校祭の参加者は行わない。発表会は若狭町の中学生や町内関係者も招待予定。

SDGsは「持続可能な開発目標」の略称で「17」の目標が設定されている。2016年に採択された「2030年までに持続可能な開発目標を達成する」という目標が設定されている。

【韓国語】

우리는 유엔(UN)이 제창하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의 “③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⑩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을 달성하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탐구 활동을 해봤다. 우선 후쿠이현 영남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많지 않아서 쓰루가 시 건강 센터와 미하마 초 보건 복지 센터에게 임산부는 평소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 지역의 현상을 조사한 후 2개 대책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봤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직접 임산부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임산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임산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복지 센터 등에서 임산부 체험을 할 수 있는 추가 들어 있는 앞치마형 기재를 빌린 후 미카타 고등학교 학생축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 앞치마를 입고 임산부 체험을 해봤다. 체험자들에서는 “생각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져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었다” 등 의견이 나왔다. 이 임산부 체험을 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배려심, 남녀가 서로 도와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 활동은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둘째, 미하마 초 동사무소 근처에 산부인과를 짓는 것이다. 미하마 초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원래 산부인과가 6곳 있었다. 그러나 현재 출산이 가능한 데는 4곳에 불과하다. 거기서 미하마 초에 새로 산부인과를 짓는 경우를 생각해봤다. 건설 이유로서 인구 10만 명당 의료 종사자 수를 조사해봤는데 후쿠이현 영남 지역의 조산사 수는 후쿠이현 전체 혹은 전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영남에는 조산사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 산부인과를 설립해도 조산사가 부족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산부인과 설립에 들어갈 비용은 땅값에 약 3000만 엔 이상, 설비에 약2000만 엔 이상 필요할 것이다. 이 것은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기안자가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출시하는 대가로 부수를 받는 구조이다. 실제로 히로시마 현이 있는 산부인과는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새로 산부인과를 설립하여 지금도 많은 출산을 도와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부인과를 새로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으로 산부인과를 새로 설립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임산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체험과 대책은 미카타 고등학교가 주최한 “우리의 미래” 탐구 학습 발표회에서 와카사 초와 미하마 초의 촌장과 교육장 및 인근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포스터 발표를 했다. 지역 사람에게 산부인과 부족 현황과 임산부 생각 등을 문제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산부를 보다 깊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임산부가 마음편하게 우리 지역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